

선거

“대학생 생활 문제 해결에 최선 ... 팀 과제 절대평가도 추진할 것”



정후보 정주희(사학 2012) / 좌
부후보 단재민(미술학 2010) / 우

서울캠 총학생회 후보 ‘취향저격’

최병헌 기자 chbh1027@khu.ac.kr
유정아 기자 yuangela@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정주희 정후보(정) - 많은 학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생활비 문제가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모습을 보며, 실생활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 이전 47대 총학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러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단재민 부후보(부) - 올해 미술대학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며 여러 일을 진행하다 보니, 청년 문제에 공감하게 되어 정후보와 함께 뜻을 맞추게 됐다.

Q.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A. 정 - 우리학교 학생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경희인’ 모두가 만족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취향저격’이라는 선본명을 사용하게 됐다.

Q.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정 - 세 가지 청년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한다. 대학생-정당 간 정책협약,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 신설, ‘경희타요’ 버스 등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핵심이다.

Q. 대학생-정당 간 정책협약을 공약으로 내 결었다.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것인가?

A. 정 - 희망리서치에서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주거, 고용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수많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참고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지자체에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협약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다.

A. 부 - 청년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만약 우리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더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동대문구에 직접 제안하여 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A. 정 - 재정 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재단에서 투자와 수익 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 KMC에서 나온 수익금을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KMC에서 나온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교육관련 재정에 사용하기로 협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교통비와 자취지원금 1억 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 부 - 아직은 교통비와 자취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배분기준을 더욱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있는 여러 장학제도를 검토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

고 싶다.

Q. 기존에 설국버스와 학생 자원처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것과 ‘경희타요’의 차이가 무엇인가?

A. 정 - 경희타요는 기존의 스쿨버스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다. 기존의 본교 통학지원 시스템에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수요조사와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노선의 개수나 시간대의 다양성 등을 개선해갈 계획이다.

Q. 팀풀이 있는 수업에 절대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실상 교양이나 전공 수업 대부분에 팀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A. 정 - 팀풀은 조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더 나은 성과와 배움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수업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면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선본은 팀풀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제시했다.

Q. 중간점검제도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A. 정 -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드물다. 과제를 위한 과제일 뿐 실력향상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간점검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좀 더 나은 학습권을 보장해주고자 한다.

Q. 단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긴장이나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은 있나?

A. 정 - 강의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약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운관 지하 1층 쉼터나, 청운관 앞 벤치를 방문하여 학우들에게 ‘어떤 총학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면서 소통한다. 공약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A. 정 - 제가 체감한 문제에서부터 주변 지인이나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문제들까지,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출마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성차별 경험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

서울캠 총여학생회 후보 ‘투게더’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옥지은 정후보(정) - 2012년부터 직접 총여학생회(총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 올해 반(反)성폭력 학칙을 개정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종종 들리는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실은 성희롱이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바꾸고 싶다.

A. 성미래 부후보(부) - 작년에 총여 존폐

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 대자보에 적힌 ‘실제로 학내 성차별이 있나?’는 질문을 보고, 성적 농담으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엔 나 혼자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켜보니 그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차별적인 언어나 성폭력에 대해 재정의 하고, 총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

Q.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A. 정 - 일상생활 도중 성적인 차별이라고 느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아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투게더 : 일상의 이야기를 모아 하나 되는 여학생’이라는 선본명을 사용하게 됐다.

Q. 공약 중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A. 정 - ‘소통up 공약’이다. 언제든지 여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여학생 휴게실에 ‘게시판’과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함’,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온라인 소통창구 ‘KHU女실시간톡’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오프라인 응답소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여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정 -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우리학교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인증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로 성별을 확인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피드백을 받겠다.

Q. 전임 총여학생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정 -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A. 부 - 여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주점을 부탁해’, 반성폭력 학칙 개정, 천 개의 공감 강의 중 교수의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점들을 미루어보아 잘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A. 정 -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여학생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A. 부 - 선거 활동 때부터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정후보 옥지은(철학 2010) / 좌
부후보 성미래(아동가족학 2014) / 우

남녀 공감 심통 → 의사소통워크숍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2015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통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이성관계에서의 갈등이해와 의사소통	내용
일시 : 2015.11.25.(수) 13시~18시(석식포함)	- 남녀언어의 차이
장소 :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중세미나실	- 남성적인 대화 VS 여성적인 대화!
대상 : 남·녀 학부 재학생 15명 내외	무엇이 유리한가?
[참가자의 50%이상은 신입생(1학년)]	- 나의 공감능력지수는?
강사 : 유정훈 [젠더협향상교육원 원장]	- 남녀 간의 갈등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 젠더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접수기간 : 2015.11.09.(월) ~ 11.20.(금)

신청방법 : 여학생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로 신청

여학생과 홈페이지 : <http://web.khu.ac.kr/~wss0208/>

문의 : Tel. 02-961-0208 e-mail - khsa0043@khu.ac.kr

제41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진화, 인간 본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일 시 : 2015. 11. 18. (수)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오래된 연장동 / 전중환 지음, 사이언스북스, 2010
 - 욕망의 진화 /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년 전 수렵-채집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장착된 여러 심리적 도구들의 묶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일상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삶의 의미나 목표 같은 의문들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 강연 요약

*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과 T.02-961-0074,0078 khsc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지식창업교육센터 11~12월 특강 시리즈

- 장소 공학관 107호(12/10 추후 공지)
- 강사 대기업임원진 (취업진로가이드)

B2B산업과 기업의 이해

LG화학, 이석기 인재확보팀/채용총괄부장
11/17(화) 10:00~11:30

기술개발이전사례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임진호 기술전략실장
11/18(수) 15:00~16:30

B2B기업의 고객가치제안사례

LG CNS, 김우진 컨설팅사업부 수석부장
12/8(화) 10:00~11:30

기업의 투자방법 및 투자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김종필 CIO(최고투자책임자)
12/8(화) 15:00~16:00

미래세상의 창조

컬럼, 박문서 한국지사 부사장
12/10(목) 15:00~16:00

- 주관 지식창업교육센터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
- 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취업지원, 한국발명진흥회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